

건설소식

민간자본으로 건설 투자 보완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 부족한 건설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BTL, BTO 등 민자사업의 투자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강북 광역재개발계획 추진을 서두르고 공공부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거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적가치 낙찰제 등 다양한 공공발주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책으로 BTL, BTO 등 민자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학교복합시설 투자를 위한 시범사업과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 전담 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전담 추진기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하며 개발계획 승인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이미 발표된 공기업 지방이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북 광역재개발계획 추진을 가속화, 오는 9월까지 2~3곳의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송파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승인 등 주택시장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2006~2010년간 연평균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에 연 30만가구의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 때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점부여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하반기 지출규모가 지난해의 67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88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올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계약관련 부문에서는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다양한 공공발주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계약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

해 법인·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지·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을 촉진키로 했다.

대형건설사고 조사 위원회 설치

규개위, 안전점검보고서 안내면 과태료

내년부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건설교통부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 대상공사는 연장 500m 이상 교량이나 연장 1km 이상 터널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등이다.

지자체 등 발주처도 12종 시설물 외에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해체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설치대상인 재해의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생겼을 때,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이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동안 건설업체나 주택업체들이 공사를 준공한 후 안전점검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건교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해 안전관리업무의 내실화와 함께 구조물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규개위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비율이 51%에 이른다”고 밝혔다.

‘평’ 대신 ‘m²’ 쓰세요

정부, 광고 등에 사용 땐 과태료

앞으로 땅 넓이를 환산할 때 흔히 사용되는 평, 마지기 등의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m², ha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길이를 나타낼 땐 m, km 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비법정계량단위를 광고 등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자·인치·야드·평 등 비법정계량단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통용돼 같은 단위라도 품목별 거래량이 달라 상거래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표지판, 이정표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건교부 등에는 건설, 토목부문에 사용되는 단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나서도록 요청키로 했으며 재경부에는 국유재산을 표기할 때 법정단위를 사용(‘평’ 단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법

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팀을 구성하고 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단위에는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것들이 혼재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과의 무역 등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것이라 전면적으로 쓰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관련 정부부처 등에 협조를 구해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던 계량단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분야 기술사 457명 탄생

한국산업인력공단, 78회 최종합격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은 제78회 기술사 최종합격자 646명(건설분야 457명 포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가스기술사 등 72개 종목에 1만1,193명이 접수해 7,920명이 1,2차 시험에 응시, 646명이 기술사로 탄생했다.

이 중 설비부문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 가스

최치영, 정기웅, 이승림, 이중권, 최상만, 정성원

△ 건축기계설비

신현모, 채영태, 문세연, 이재화, 박금암, 이수영, 노상규, 이학수, 송금영, 조항만, 전호성, 강석광

△ 건축전기설비

최광원, 하정석, 임진성, 서광현, 송규현, 금동신, 이병우, 유석봉, 박상교, 서재욱, 허상운, 임동구, 송진구, 이상진, 오진택, 정영수, 서일원, 임춘배

△ 공조냉동기계

오양섭, 고세진, 장대식, 정인표, 김성연, 이학수, 황미라, 배영수, 손창효, 정문복

△ 용접

김정범, 석상식, 양근석, 이희태

토막 상식

흔한 것이 아름답다

- 키치

요즘은 ‘키치 패션’, ‘키치 영화’ 등 키치 문화가 인기이다. 한마디로 키치는 뜨는 트렌드다.

키치(Kitsch)는 독일어로서,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다.

이 ‘키치’라는 말은 1870년대 독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만큼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은 급속한 산업화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그 당시에는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도 빨라서 중산층도 예술품을 사들이려는 욕구가 강했다. ‘키치’는 바로 그런 중산층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럴듯한 그림들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키치’는 현대에 이르러 고급 문화나 고급 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속에 뿌리박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대중 문화, 소비 문화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하나의 척도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한국에서 유행한 촌티 패션, 1990년대의 구멍뚫린 청바지 등은 하나의 ‘키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키치 문화’는 일종의 시대 현상이다. 절대적 사상이나 근엄주의, 엘리트주의에 더 이상 사회는 존경의 시선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 지고의 아름다움보다는 흔하고 복사된, 대중적인 것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이런 문화의 대표적 현상이 바로 ‘키치’라고 할 수 있다.

‘키치’는 유치찬란한 것, 송고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 흔한 것들에 대한 동경이고, 쓰레기 같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개성이다.